

## 한전KPS뉴딜로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공동 발전을 선도할 것

김범년  
한전KPS 사장



**총** 직, 근면, 성실을 상징하는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원자력 산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산업에는 종전의 공급과 효율위주의 정책에서 단계적 노후 원전 축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 확대 등 환경과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디지털과 그린으로 대면되는 K-뉴딜로 전력산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토대와 뿌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저부하의 안정적 설비관리로 차질 없는 전력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전KPS는 세계 최고 발전정비공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전력 산업계 전반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한전 KPS는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한전KPS뉴딜을 선포했습니다. 한전KPS뉴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적극 부응할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메가트렌드와 전력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발맞춰 혁신을 통하여 원전 안전운영의 토대로서 정비산업의 공동 발전을 선도하는 확고한 역할을 다하겠

다는 것이 한전KPS 2021년도의 다짐입니다.

앞으로도 한전KPS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사업 고도화를 통해 초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협력, 동반성장, 인권경영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정과제 이행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기업 모델을 구현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원자력산업과 관계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KMIF**